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이 한없이 편합니다



1934년 백양사 대교에서 수학하던 도반들과 함께한 법천스님(왼쪽에서 첫번째)

서 열매만 따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알하지 않고 먹고사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참으면서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엇인가에 몰두해 있을 때 일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참다운 즐거움이나 행복은 느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실직으로 수입이

위의 주체는 무탈할 것도 없이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도 중요한 행위의 주체인 '나'에 대해서는 깊이 따져 보지 않습니다. '나'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삽니다. 이 몸뚱이를 살찌우려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또 좋은 옷을 입혀 주는 등 여러가지 이익되는 일들을 모두 합니다. 또 내 마음에 맞으면 좋아서 웃고 기뻐하고 마음을 채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들은 이 몸과 마음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기 위

“어려운시기 극복 하려면 주어진 몫에 최선을 다해 미래를 창조해 나가세요”

만약 '마음 밖 다른 곳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굳게 고집하여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와같은 사람은 비록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태우고 뼈를 두드려 골수를 내며 피를 뽑아 경전을 쓰고 밤낮으로 놀지 않으며 하루 한끼만 먹고 팔만대장경을 출몰 외며 온갖 고행을 닦는다 할지라도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보탄도 없이 수고롭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성이 자기안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마음을 닦는다면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여래의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하시고 "모든 중생의 갖가지 허망된 생각이 다 여래의 원각묘심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던 것이지요. 이 마음을 떠나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은 가정대로 병들고, 사회는 사

은 화두입니다. 나는 이 화두를 평생의 버팀목으로 삼아왔습니다. 나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항상 참구하고 산다면 그것은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무상하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을 미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부처님 법을 닦아나가다 보면 어려움도 극복하고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실의에 빠져 있는 가장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청년들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해 나간다고 합니다. 미래는 시간의 빈 그릇과 같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으나 그 시간의 그릇은 우리들 자신이 채워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채워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 살며, 희망을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충실한 삶을 준비하는 몸을 맞으세요. 위유왕불(威肅王佛)의 상법탈(像法末)에 한 보살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보살은 욕설로 꾸짖고 막대기나 기왓장 물맹이로 때리고 하는 못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항상 그들을 향해 "나는 그대들을 가법계 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장차 불성을 개발해 부처님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예배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 '상불경(常不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불경 보살은 어느 누구에게나 불성(佛性)이 갖춰져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심(下心)' 하도록 하게 하죠. 남을 이기고 정취하려고만 들지 마세요. 먼저 마음을 열고 상불경보살처럼 상대방에게 숨겨져 있는 잠점만을 보고 차별심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신이 가볍게 여김을 당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땀 흘리지 않고 행복 얻으려하면 도둑심보 심은대로 거두는 인과법 알고 실천해야”

없이 생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항시 마음을 부처님 마음에 대고 사십시오. 어리석음과 깨달음은 천양지차지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모든 선근(善根)을 거기서 길러낸다.' 또 유식(唯識)에서는 '믿음은 물을 맑히는 구슬(水精球)과 같은데, 그것은 흐린 물을 맑히는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항시 저비스럽고 청정하게 부처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와 믿음을 갖고 화두를 풀어 보십시오. '나'란 무엇입니까? 삶을 이어가는 행

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쓴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갖가지 생활양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 아프고 병들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면, 다시 말해 마음에 그 요소를 심으면 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마음이 씨를 뿌려 몸이 재앙을 받는다(作林心 殃在身)는 말이 딱 맞는 듯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법을 멀리 성인들에게서만 구하려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회대로 병들어 그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우매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마음, 깨끗한 마음, 삼독에 물리지 않은 마음, 번뇌의 불꽃이 조금도 번들지 않는 마음, 그러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만족할 줄 아는 생활을 얻을 수 있으며,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만이 작은 것에서 중독함을 느끼고, 항상 제 분수를 알아서 과욕하지 않는 참생활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화두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몸 받기 전 전면목은 무엇인가(父母未生前 是面何目)'. 당대의 대강백 백학명 스님을 3년간 시봉하면서 받

나와 경전



육조단경



원철 은해사 승가대학원

중국 선사의 어록중에 유일하게 '경(經)' 대접을 받는 것이 혜능(慧能 638~713)스님의 <육조단경>이다. <단경>은 그 신봉적 한계를 뛰어넘어 법을 전해받는 입지정적인 흥미진진한 구상과 탁월한 안목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널리 읽혀져 왔다. <단경>을 처음 만난 것은 탄허스님 번역본에 의해서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육조스님의 머리가 동쪽으로 건너와 쟁세사에 모셔져 있다는 신앙심이 함께 결부되어 더욱 많이 읽혀졌다. 그러한 '정상동래설(頂相東來說)' 이야기가 부록의 형태로 실려 있는 덕이본 단경이 단연 인기 제일이였다. 탄허스님의 번역본 역시 덕이본(德異本)이다. 단행본 <단경>을 알게된 것은 당시 해인총림 방장이던 성철스님의 법문을 통해서였다. 성철스님은 원본인 동행본을 통해서 <단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 스님의 '단경지침'이라

도록 하였다. 서문은 덕이본의 법해스님 찬(撰)을 그대로 쓰고 성철스님의 단경지침은 맨 뒤에 단행본으로 달았다. 이렇게 만든 책 제목을 <이본대조 육조단경(二本對照 六祖壇經)>이라 붙였다. <육조단경>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자기 내면 세계까지 천착해 가는 치열한 안목이 군데군데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경>의 독특한 관점은 자성불(自性佛)의 강조이다. 삼귀의 역

혜능스님 어록...자성불 강조 돋보여 돈황본·덕이본 대조 새교재 만들어

는 특장을 1987년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린 '전국 선화자(禪和子)대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 전국선화자대회는 초산담자들의 공부길을 제시해주기 위한 특강형식으로써 4강좌중 2강좌가 <육조단경>이었다. <육조단경> 본강의는 당시 봉암사 조실이던 서암스님께서 하셨는데 그 교재가 덕이본 단경이였다. 한 법석에서 돈황본과 덕이본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인연을 갖게된 것이다. 그로부터 단경이 종문(宗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육조단경제본정성(六祖壇經諸本集成)>이라는 제목으로 여섯가지 판본을 모아놓은 필사영인본도 접하게 되었다. 1993년 <육조단경>을 자세히 살펴야 할 사정이 생겼다. 돈황본만으로는 단경의 그 고유성과 독자성을 헤아리기 어려워 새로 교재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가장 원본으로 추정되는 돈황본과 가장 대중성있는 덕이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사상적인 변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구질 구질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때 마침 컴퓨터가 사할에도 들어오기 시작하니 돈황본과 덕이본을 각각 입력시켜서 서로 대조하여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신(仙·神)자를 파지(破字)하면 '산',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인 소나무의 호흡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나.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불(火)·흙(土)·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적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복(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난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인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은 토종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쳐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장(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미디·송화기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시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보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한번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 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장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예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원액 1개월분
정가 ₩700,000원(₩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구입문의 (대구)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러한방